

Essay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



박 규 채 (대방종합사회복지관회장·탈렌트·본회이사)

특

별히 부지런을 떨자고해서가 아니라 나는 새벽을 보람있게 쓰고자 노력한다.

나는 매일 새벽 일어나선 곧 아침명상을 겸한 기도를 한다. “옴마니 반메흠...으로 시작하는 진언을 통해 관세음보살님께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위한 기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아침 체조를 한다. 그러노라면 청소부가 쓰레기통을 치워가는 소리가 들린다.

딸그락 딸그락 쓰레기통을 굽는 삽소리가 부지런한 청소부의 일숨씨를 알려 주는 것이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청소부에게 마음으로 고마운 생각을 한다.

때로는 나가서 “수고하십니다”라는 등의 말로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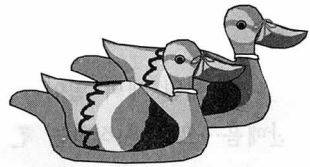
이런 일을 전후해서 신문을 돌리는 소년의 바쁜 발자욱 소리를 듣게 된다. 신문을 집어 들면서 저 멀리 바삐 사라져가는 소년의 자취를 장

하게 생각해 본다. 기특한 소년의 앞날에 소원성취가 있기를 빌어 본다.

나는 매일 아침 목욕탕에 간다. 피로도 풀겸 하루의 활동을 시작할 몸의 컨디션을 맞추고 또 마음을 가라 앉혀 마음까지 씻으려는 것이 매일 목욕탕에 가는 의도인 것이다. 집 문을 나서다 의례 만나는 분이 우유를 돌리는 아줌마이다. 사정은 내가 잘 모르지만 아뭏든 가게를 보태기 위해 새벽의 고단한 잠을 줄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집집을 도는 「우유아주머니」는 고맙고 장한 분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한 우유아주머니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서 노상 상담을 나눈 일이 있다. 아들 둘이 지난 어느날 빗을 남기고 집을 나간 남편이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 안돌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

들이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셔서 좋은데 자기만 아버지가 안계셔서 쓸쓸해하고 심각해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제 남편이 남기고간 빗도 자기가 우유배달로 생계를 이으면서 근근히 다 갚았다는 것이며 남편이 돌아와 주기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내가 방송국에 얘기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찾는 데 협조해 줄 수 없나 싶어 호소하는 것일 게다.

나는 그 남편되는 분의 무책임을 탓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그 남편되는 분이 돌아올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고심한 적이 있다. 우유아주머니와 정중히 고개인사를 나누고 골목을 나서다보면 거의 매일 새벽 한 노인을 뵈게 된다. 그 노인은 언제나 세발 의자 하나를 내다 놓고 멍하니 표정 없이 앉아 계신다. 하도 무표정 하셔서 인사 드리기도 어려워 조심스런 발 걸음으로 앞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 노인의 명한 표정.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문밖엘 나와 앉아 계시는 그 어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는 맘이 들기도 한다. 지나온 세월을 회상 하실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 하실까 아무래도 내 짐작에는 오로지 문밖 골목에 나와 앉아 있는 현실, 그 자체에 고정되신게 아닐까 생각 되는 것이다.

새벽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일정하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분들은 나처럼 새벽 목욕을 하나의 일과로 하는 분들인 것이다.

이렇게 거의 매일 목욕탕에서 그야말로 발가벗고 만나는 사람들은 허심탄회하기 마련이다. 한동네 사람들인데다가 새벽 목욕동료들이라는 데서도 친숙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만나면 어제 한잔 했었느냐는 등의 가벼운 인사에서부터 살아가는 얘기, 집안 얘기, 시사(時事)얘기들을 기탄없이 나누게 된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게 마련이다.

세상을 목욕탕에서처럼 터놓고 얘기하면서 정답게 살 수 있었으면 싶어진다.

새벽 목욕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아쉽다. 예서 제서 “어이 시원 하다!” 소리를 하면서 물에서 나온다. 그 하루의 일도 시원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분들이다. 고맙기만 하다.▲▲